
출장결과보고

Econometric Society 2026 Asian Meeting
발표 및 참가

출장복명일 2026.08.06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 출장 개요

□ 출장 배경 및 목적

- (배경) 신진 연구자로서 연구역량 고도화 및 연구 인프라 확보 필요
 - 보고자는 2025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KDI에 합류한 신진 연구자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부동산·가계부채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보고자는 신진 경제학 연구자로서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국제학계의 검증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수행할 연구 어젠다를 조기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보고자는 본 출장을 통하여 해외 최신 연구동향 및 각국의 정책 운용 경험을 간접적으로 접함으로써, 국내 정책수요와 연결되는 후속 연구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아시아 각국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계부채·주택시장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비교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함.
 - 신진 연구자의 경우 공동연구, 논문 자문, 세미나 교류 등을 뒷받침할 인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로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통해 동 분야 연구자와의 접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연구 협력 및 KDI 연구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보고자는 또한 박사과정에서 수행한 연구를 정책연구원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키고, 이를 국제학술지 게재 수준으로 완성해 나가는 단계로, 국제학술대회 발표는 논문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연구성과의 대외적 인정을 확보하는 통상적 경로임
- (출장 배경) 논문 발표 및 피드백 수렴
 - 발표논문 제목: Macroprudential policy and precautionary deleveraging
 -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자 및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고도화하고자 함.
 - 수렴한 의견은 논문 수정·보완에 반영하여 향후 국제학술지 게재를 추진할 계획임.
- (목적1) 논문 발표 및 피드백 수렴
 - 발표논문 제목: Macroprudential policy and precautionary deleveraging
 -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자 및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고도화하고자 함.
 - 수렴한 의견은 논문 수정·보완에 반영하여 향후 국제학술지 게재를 추진할 계획임.

○ (목적2) 해외 정책 · 연구동향 파악

-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경험 및 관련 학술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후속 연구주제를 발굴하고자 함.
- 아시아 각국이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유사한 규제수단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별 제도 설계와 정책효과 분석 사례를 비교·검토할 실익이 있음.
- 국내 정책환경에 적용 가능한 분석기법 및 정책연구 수요를 확인하여 향후 KDI 연구과제 기획에 활용하고자 함.

○ (목적3) 학술교류 및 연구기반 확보

- 국내외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중장기 연구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동 분야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세미나 초청, 논문 자문 등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함.
- 아울러 KDI의 연구성과를 국제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연구원의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참석 예정 주요회의

○ Econometric Society 2026 Asian Meeting

- Econometric Society는 경제학 분야 최대 학회이며, Asian Meeting은 해당 학회의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로 아시아의 주요 경제학 컨퍼런스 중 하나임
-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Econometric Society는 *Econometrica* 및 *Quantitative Economics*(「대학원 교원업적평가규정」 A등급 학술지)를 발행하는 등,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
- 해당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 논문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현재 아시아 혹은 참가한 각국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및 가계부채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출장지 및 방문기관

- 출장지: 베트남 하노이
- 학술대회 장소: Meliá Hanoi 호텔
 - 44B Ly Thuong Kiet Street, Cua Nam Ward, Hoan Kiem District, Hanoi, Vietnam

□ 출장기간

- 출장기간: 2026년 7월 30일 ~ 8월 3일
- 출장기간의 타당성
 - 학술대회는 7월 31일 아침에 시작되어 8월 2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일정
 - 출입국에 소요되는 시간과 원내 일정을 고려하여 7월 30일 점심까지 원내 중간세미나에 참석한 뒤 출국하는 등 최대한 출장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
 - 학술대회가 종료된 8월 2일 오후에 출발하여 바로 귀국 비행편이 존재하지 않아 23시55분 비행편으로 귀국하게되어 한국 귀국일인 8월 3일까지 출장기간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출장자

소속	성명	직위
경제전망실	유재영	부연구위원 / 모형총괄

- 출장자의 적임성 판단
 - (발표자 선정) 보고자는 Asian Meeting 2026에 발표논문을 제출·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발표자로 선정되었음
 - (직무 관련성) 발표논문의 주제가 보고자의 담당 연구분야와 직접적으로 부합함.
 - (수행 역량) 발표논문의 제1저자로서 연구의 전 과정을 수행하였는바, 발표 및 논의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2 출장 일정

☐ 출장일정

- 일자: 7/30~8/3 (입 · 출국일 포함)
- 세부 일정(안):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내용	비고
7/30 (목)	18:55 - 21:35	[출국] 인천 → 하노이 (KE447), 호텔 도착 및 숙박	
7/31 (금)	09:00 - 11:45	Keynote speech / 선택 논문발표 세션	
	11:45	Lunch Break	
	13:00 - 18:00	Keynote speech / 선택 논문발표 세션	
	18:00 -	학회 참석자간 교류	
8/1 (토)	09:00 - 11:45	Keynote speech / 선택 논문발표 세션	
	11:45	Lunch Break	
	13:00 - 16:30	Keynote speech / 선택 논문발표 세션	
	16:40-17:06	선택 논문발표 세션 / 논문 발표	
	18:00 -	학회 참석자 간 교류 / Gala Dinner	
8/2 (일)	09:00 - 11:45	Keynote speech / 선택 논문발표 세션	
	11:45	Lunch Break	
	13:00 - 14:30	선택 논문발표 세션	
	17:55	[귀국] 하노이 출국 (KE 448)	
8/3 (월)	05:25	[출국] 인천 도착 (KE 448)	

☐ 숙박호텔: Melia Hanoi

- 해당 호텔은 학술행사가 이루어지는 호텔로, 원활한 학회 참석을 위해 행사가 이루어지는 호텔로 선택
- 규정에 따른 숙박비를 집행

☐ 예산명: 국외 학술회의 지원 사업

3 컨퍼런스 및 출장 주요 내용

□ 기조연설(Keynote) 주요 내용

- (José A. Scheinkman, Columbia Univ.) “From Degradation to Recovery: Quantifying the Impact of Emission Prices on Tropical Forests”
 - 열대우림은 지상부에 약 593기가톤의 CO₂ (1850년 이후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약 1/4)를 저장하고 있으며, 산림 훼손이 탄소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
 - 세계 최대 열대우림인 브라질 아마존을 대상으로 산림 훼손·복원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배출권 가격이 산림 훼손 및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분석방식: 과거 생물다양성 손실 및 배출권 가격이 향후 생물다양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 규모별로 추정하는 모형을 제시
 - 결론: 생산성이 낮은 벌채가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톤당 \$25의 이전지급으로 생물다양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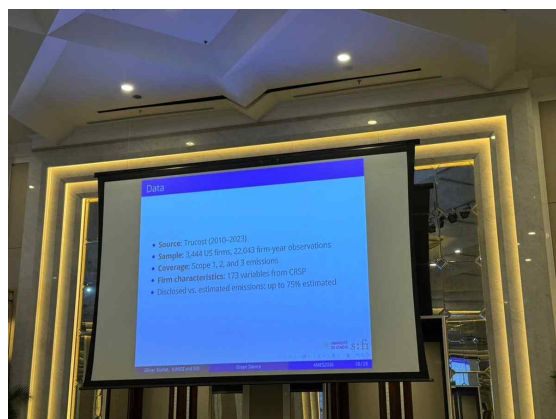
- (Lars Peter Hansen, Univ. of Chicago) “Asset Pricing, Decision Theory, and Public Policy Design“
 - 정책 평가에 사용되는 동태·확률 모형은 현실을 단순화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심층 불확실성(deep uncertainty) 하에서 불확실성 하 의사결정이론과 자산가격 이론을 정책 설계에 접목하는 방법론을 제시
 - 모형 모호성(ambiguity)과 설정오류(misspecification) 가능성을 동태적 의사결정이론으로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평가(social valuation)에 통합하고, 한계 사회적 가치평가(온난화의 사회적 비용, R&D의 사회적 가치)와 대응의 시점(timing)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고찰
 - 연구방법: AK 생산모형에 두 종류의 포아송 점프를 넣고 불확실성이 있는 모델을 풀이
 - 결론/내용: 불확실성 회피는 최악의 확률을 기술성공 지연 쪽으로 기울여 R&D를 덜 매력적으로 만듦. 그러나 동시에 불확실성 정보는 가치 격차를 크게 만들어 연구를 앞당길 유인도 강화시킴. 계산결과 두 번째 힘이 지배하여 불확실성이 클수록 R&D 투자가 증가함.



- (Maryam Farboodi, MIT) “Do Markets Believe in Transformative AI?” (with I. Andrews, 2026)
 - 연구질문: 시장 참여자들이 "transformative AI"의 가능성을 실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 연구방법: 2022.11월~2025.12월 중 4개 프론티어 랩의 주요 AI 모델 출시 30건 전후 미국 채권 금리 반응을 분석, 이벤트 스터디 + 순열검정(permutation inference) 방법론 사용
 - 장기 국채·TIPS·회사채 금리가 모델 출시 전후 하락하여 수주간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하락은 클라우드소싱 예측이 AI 발전 속도에 대한 긍정적 소식으로 해석한 출시에 집중
 - 결론: 소표본에서 유효한 다양한 통계 검정에서 유의한를 찾아내어 투자자들이 Transformative AI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



- (Olivier Scaillet, Univ. of Geneva) “Green Silence: Double Machine Learning Carbon Emissions under Sample Selection Bias”
 - 연구질문: 기업 탄소배출 데이터는 자발적 공시와 미공시 기업에 대한 벤더 추정치가 혼재되어 있어, 공시가 내생적일 경우 공시 기업 표본으로 학습한 추정치에 체계적 편의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편의의 크기가 상당함을 보이고 보다 신뢰도가 높은 추정방식을 제안
 - 연구방식: Heckman식 표본선택 교정 논리를 3단계로 적용. 오차항 정규성 하에서 공시 여부를 lasso probit으로 추정한뒤, 교차적합(cross-fitting)알고리즘으로 정규화 편의를 제거하여 과대평가를 교정한 값을 확인하고 kernel group lasso를 통하여 공시 배출량을 그룹 특성에 대해 회귀
 - 결론: 숨겨진 탄소의 사회적 비용 380억 달러에 이르며 자발적 공시가 역선택을 낳고, green silence가 오염기업에 보상을 주며 탈탄소를 저해함.



□ 본인 연구 발표 내용 및 피드백

○ 논문내용

- 논문제목: Macro-pru Policy and Precautionary Deleveraging
- LTV·DTI 같은 대출한도 규제는 신규 차입자만 겨냥하지만, 신규 취급액은 전체 대출잔액의 10%에 불과. 즉시 상환 의무가 없는 기존 주택보유자도 규제에 따라(1) 자발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2) 단기적으로 연체·부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임.
- 메커니즘: 주택은 비상 유동성 창구로서 소득충격이 오면 재대출(equity extraction)로 소비를 평활화하는데(Hurst-Stafford 2004), LTV가 조여지면 이 창구가 막힘. 따라서 충격의 파급이 커지므로 가계는 대안 보험수단인 사전적 디레버리징으로 대응하고, 미처 줄이기 전에 충격이 오면 더 약한 충격에서도 상환 포기
- 실증방식과 결과: 2017-2022년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시차적 도입을 준실험으로 사용하여, 한국은행 가계부채DB에 LP-DiD를 적용. 결과는 매커니즘을 지지하며,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소득 대비 주담대는 8분기 후 약 9% 감소, imputed LTV 40% 초과 차주는 14% 감소로 두 배 가까이 크고, 공식 부도와 90일 연체가 모두 상승하는 것이 관측됨.
- 정책실험: 소득충격·주택선택·확률적 노화·비유동적 주택을 넣은 생애주기 모형에서 기존 보유자의 반응을 끄면 부채 감소폭이 40-50% 줄고 단기 부도 급증도 사라짐.

○ 피드백 내용

-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선택편의로 인한 문제제기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상의 방어, 그리고 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설명하여 답변함.
- 한국 정책 구조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성실히 설명함.
- 정책실험 과정의 함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책적 함의에 대한 내용과 연구의 한계와 추가 연구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오감.

○ 발표 당시 사진



□ 해외학술 교류 내용

○ 학회를 통해 교류한 국내외 연구자

- Bada H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USA
- Yuchen Liu,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Taiwan
- Trinh Pham, KDI School, Sejong-si, Korea, Republic of
- Charles Ka Yui Leu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Kowloon Tong, Hong Kong
- Thomas Ma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Fullerton, USA
- Aniket Baksy,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Australia
- Yuanhua Xu, University of Luxembourg, Luxembourg, Luxembourg
- Xiaohan Deng, The University of Tokyo, Tokyo, Japan.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Tokyo, Japan
- Hibiki Ichiue, Keio University, Tokyo, Japan
- Changyoung Lee, Department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Republic of
- Jingxuan Ren, Department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Republic of

○ 학회 교류 행사 참석사진



□ 참석하신 선택 세션 발표 및 논문내용

- “House Prices Under Rising Seas: Deep Uncertainty in Theory and Evidence”
 - 장기 재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되 확률분포 자체에 대한 모호성(ambiguity)에 직면한 투자자를 상정한 자산가격 모형을 구축하고, 변분법으로 모호성 중립(ambiguity neutrality)에 대한 명확한 귀무가설 등 검정 가능한 함의를 도출
 - 미국 단독주택 거래 1,360만건(2001~2024)을 고해상도 해수면 상승(SLR) 침수 전망과 매칭하고, 시계(horizon)별 영구 침수 확률로 정의한 SLR 재해위험의 기간구조를 핵심 실증 혁신으로 활용
 - 가격 수준에서 모호성 중립을 기각하고 모호성이 위험의 가격 반영(risk capitalization)을 증폭함을 확인하였으며, 100년 시계의 재해위험 장기 할인율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를 제시
- “Spatially Targeted LTV Policies, Housing Prices, and Residential Choices”
 - 이질적 가계와 2개 지역, 내생적 거주지 선택을 포함한 다부문 뉴케인지언 DSGE 모형을 구축하고 대만 분기자료(2010Q1~2019Q4)로 베이지안 추정
 - 표준 테일러준칙 하에서 지역 표적 LTV·재산세 정책은 차입가계의 도시→농촌 이주를 유발하여 도시 주택가격 하락, 농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
 - 도시 LTV 상한 인하의 주택가격 억제 효과는 동반되는 금리준칙과 가계의 지역 간 이동성에 의존하며, 고정금리준칙이나 주택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확장 테일러준칙 하에서는 효과가 사라지고, 도시 거주 차입자 비중이 고정된 경우 LTV 충격의 효과가 미미 — 지역 표적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반균형·이주 경로가 중요함을 시사

- “The Gender Income Gap may not measure the Gender Welfare Gap: The Role of College Majors and Education Policy”
 - 대학 전공 선택을 내생화한 정량적 생애주기 모형으로 교육정책이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보편적 대학 등록금 무상화는 성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성별 후생격차는 축소하며, 성별 기반 적극적 우대정책은 소득격차를 크게 줄이지만 후생격차는 상당히 악화시키는 등 소득-후생 격차 간 상충관계를 확인
 -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 설계 시 소득뿐 아니라 후생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

- "Strategic Complementarity and Slow Inflation Convergence: Evidence from Dynamic Beauty Contest Experiments"
 - Calvo형 가격경직성 하에서 피험자가 기업으로서 가격을 설정하는 실험실 환경을 구축하고 구조추정과 결합하여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렴이 더딘 원인을 분석
 - 총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을수록, 전략적 보완성이 강할수록 합리적 기대 균형으로의 수렴이 지연됨을 확인
 - 베이지안 MCMC 추정 결과 피험자들이 전략적 보완성을 과대평가하며, 이것이 인플레이션 수렴 지연에 기여함을 제시

-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Inflation Expectation in India using Rural Consumer Confidence Survey”
 - 인도 중앙은행(RBI)의 농촌 소비자신뢰조사(RCCS) 2023~2025년 미시자료로 농촌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 요인을 OLS·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
 - 개별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유의하게 상회하여 적응적 기대 형성을 시사하며, 이는 2016년 이후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도 나타나는 결과

○ “Why Bank Money Creation?”

- 스테이블코인 확산이나 CBDC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순수 대부자금 중개(loanable funds) 체제와 비교하여 은행의 화폐창출 기능의 존재 이유를 규명
- 대부자금 체제에서는 가계가 은행의 대출 감시 유인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제약을 부과하는데, 은행별 감시 효율성이 비관측일 경우 총대출이 비효율적으로 과소해짐
- 화폐창출은 사전적 예금조달 없이 신용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비효율을 완화하며, 적절한 규제자본 요건 하에서 대출 확대의 이득이 감시 유인 약화의 손실을 상회 — 은행 화폐창출 특권 유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

○ “Entrepreneurship and Credit Crunch”

- 직업 선택의 역선택과 은행 대출의 도덕적 해이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내생적 창업·신용 사이클을 분석하는 모형을 구축
- 은행이 차입자의 능력과 외부옵션을 관측하지 못해 균일한 신용제약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임금 불평등 등 외부옵션 분산 확대는 고능력자의 진입을 억제하고 저능력자를 유인하여 역선택을 심화

○ “Pension Benefits and Hours Worked in an Aging Economy”

- 문제의식: 부과방식 연금에서 연금액을 깎는 요인은 인구고령화만이 아니라는 것. 기술진보로 소득이 오르면 노동자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지배), 이 근로시간 감소 자체가 임금총액을 줄여 연금급여를 추가로 떨어뜨림.
- 모형과 메커니즘: 2기간 세대중첩 신고전파 모형에 Boppart-Krusell(2020)의 일반화 log-log 효용 사용. 예상 연금급여가 노동공급 유인을 낮춰 후방굴절 마셜 노동공급곡선을 만드는데, 이 비선형성에도 불구하고 이행동학의 닫힌 해와 유일하고 안정적인 정상상태가 도출. 연금과 임금소득은 같은 비율로 성장하지만, 근로시간 감소 때문에 연금이 임금보다 느리게 증가하며, 그 격차는 기술진보 속도와 여가선호 강도가 클수록 벌어짐
- 함의와 확장: 정량 캘리브레이션 결과, 노동공급 반응을 무시하면 연금 증가율·연금제도 수익률·정상상태 후생을 모두 상당히 과대추정. 이 결론은 일반화된 Boppart-Krusell 효용과 신고전파 생산함수로 확장해도, 소규모 개방경제로 확장해도 유지됨(다만 개방경제에서는 이행경로가 진동하며 수렴).

○ “The Growth and Fiscal Cost of Late Aging: Demographic Drag and Compressed Fiscal Adjustment”

- 문제의식: 고령화의 속도가 다르면 재정 문제의 성격도 달라짐. 중국·한국 등 후발 고령화국은 2024~2100년 부양비가 70~100%p 오르는데(선발국 25~45%p), 조정 기간은 절반에 불과. 부양비를 유지하려면 은퇴연령을 20~28년 올려야 하는데(선발국 7~18년), 역사적 선례를 넘는 수준
- 방법과 결과: UN 인구전망 2024로 42개국 지표를 만들고, Fernández-Villaverde 외(2025)의 신고전파 성장모형으로 성장 저해효과를 계산. 중국·한국은 연 0.54~0.57%p(저출산 시나리오 1.15~1.17%p)로 일본 0.19%p(0.46%p)의 2~3배이며, 2100년까지 누적 GDP 손실 30~70%p.
- 정책 함의: 일본이 2004년 도입한 자동조정장치가 GDP 50%p 이상의 재정여력을 만들었고, 미국이 2024년에 같은 장치를 도입했다면 미적립 채무가 12조 달러(GDP 43%) 줄었을 것으로 추정. 후발국은 시간이 부족해 점진적 개혁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조정장치를 즉시 도입하지 않으면 위기 대응식 개혁을 맞게 되며, 중소득국은 제도 역량을 갖추기 전에 늙는 위험에 노출됨.



○ “Nonlinear Earnings Dynamics and Inequality over the Life Cycle: Evidence from Japanese Municipal TaxRecords”

- 연구방법: 일본 기초자치단체 행정 과세자료(2011~2021년)로 연령의존 분위수 모형(Arellano-Blundell-Bonhomme 계열)을 추정. 개인 소득을 영속적·일시적 성분으로 분해하되, 지속성(persistence)이 소득분포 내 위치와 충격 크기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달라지도록 허용.
- 소득위험의 비선형성: 개인의 기존 소득경로와 부합하는 방향의 충격은 지속성이 높지만, 방향이 뒤집히는 "reversal" 충격은 지속성이 급격히 낮아짐. 경력 전환(career change)의 반영으로 해석됨.
- 핵심 발견: 횡단면에서는 가계가 소득을 효과적으로 평탄화. 균등화 가구소득은 분산이 더 작고, 생애주기 불평등 프로파일도 개인소득의 단조 증가와 달리 J자형을 나타냄. 다만, 충격반응(IRF)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드러남.. 영속성분 분포의 같은 분위에 있는 개인·가구가 혁신 분포에서 상·하위 분위기를 뿔았을 때, 가구소득의 변동이 가구주 개인소득을 오히려 상회. 배우자 충격의 상관, 공동 노동공급 결정, 인구학적 조정 때문으로 보이며, 횡단면 분산만으로 가계의 보험기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함의를 내포.

○ “Tax Code and Fiscal Investment Frictions”

- 모형: 담보제약(collateralized borrowing)과 개별 생산성 충격을 가진 이질적 기업의 DSGE 모형. 기업 투자는 담보차입 제약과 법인세 양쪽에서 왜곡되고, 투자지출은 가속상각을 통해 과세소득에서 공제됨. 공제 정책을 **표적형(targeted)**과 **비표적형(untargeted)**으로 구분. 모형은 기업 규모별 투자의 단기 탄력성 분포라는 실증 추정치를 정량적으로 재현됨.
- 메커니즘: 담보제약에 걸린 생산성 높은 기업은 자본을 과소보유하는데, 공제 확대가 이들의 실효 투자비용을 낮춰 자본 오배분(misallocation)을 완화됨. 이 경로를 통해 공제 확대가 경기침체의 깊이와 지속성이 감소.
- 정책 함의: 표적형 정책이 총생산 부양 효과에서 비표적형보다 30% 더 효과적. 두 정책을 병행하면 전체 효과가 17% 감소합니다. 현행 미국 세제가 두 방식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조합 자체에 비효율이 내재됨.

□ 학술대회 참석 증명서

The Econometric Society

An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Economic Theory in its Relation to Statistics and Mathematics

Certificate of Attendance

2026 Asia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 East & Southeast Asia (AMES-E/SE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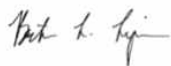
This is to certify that

Jaeyoung Yoo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resented paper: "Macroprudential policy and precautionary deleveraging" in

session: "Banking, Credit Creation, and Macroprudential Policy" at

AMES-E/SE 2026, July 31 - August 2, 2026



Barton L. Lipman

Executive Vice President



Duc Khuong Nguyen

Scientific Program Co-Chair

